**나그네를 사랑하라**

**<신명기 10장 17-19절>**

**17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18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19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마태복음 25장 37-40절>**

**37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40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얼마 전 우리 교회에 공문이 하나 전달되었습니다. Generace21이라는 체코의 난민기금 단체에서 프라하의 여러 교회들 앞으로 보낸 공문이었습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올해 이라크에서 체코로 넘어온 크리스천 난민들을 이 단체가 기금마련을 통해 돕고 있는데, 체코의 다른 지역에 보내진 이들에 비해 현재 프라하에 머물고 있는 난민들의 상황이 어려워서 지역교회들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큰 집을 두 채 빌려서 거기에 몇 가정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처음 1년간은 이 단체에서 집세 및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까지 책임져주긴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초기 1년 내에 일자리를 찾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길 바라지만 그걸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와 더불어, 이 크리스천 난민들이 이 체코 땅에서 영적인 보금자리를 찾도록 돕는 일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도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두 가정은 프라하의 두 지역교회에 연결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아직 나머지 네 가정은 새로운 영적 보금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크리스천 난민들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교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로간에 여러 이유로 오해가 생겨나기도 하고, 언어적, 문화적 장벽들이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면서, 지금은 교회들의 관심이 많이 식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Generace21은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 크리스천 난민가정들을 일종의 입양 개념으로 받아들여 책임 있게 돌보아줄 수 있는 교회들을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일자리 찾는 것을 돕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세부적인 부분들을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 옆에서 도와주어야 하는 일종의 마라톤과 같은 봉사임을 기억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에 저는, 이 체코에 들어온 이라크 크리스천 난민들에 대해, 또한 그들을 돕고 있는 Generace21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들어 좀 더 조사해 보았습니다.

1951년의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Refugee)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2014년 6월부터 이슬람 무장단체 IS는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던 도시들에 무자비한 박해를 가합니다. 모술, 카라코시 등의 도시들을 차례로 장악한 뒤 이슬람 수니파로 개종을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잔인하게 처벌합니다.

이에 기독교 주민 10만여명이 죽음을 피해 북부 쿠르드 지역으로 급히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 피난여정 중에 일부는 또 희생되고, 살아남아 쿠르드의 수도 에르빌에 도착한 사람들은 주로 그곳에 세워진 난민캠프에 몸을 의탁합니다.

8월 이후에야 이 참상을 전해 들은 국제사회로부터 지원금과 구호물품이 전달됩니다. 이 당시 우리 교회도 소식을 전해 듣고 논의를 거쳐 세계교회협의회를 통해 9월 초에 지원금을 보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바로 그 9월에 이 체코에서도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그 박해 받는 이라크 기독교인들을 위한 지원 팀이 자발적으로 결성됩니다. 지원 방식은 두 가지로 정해졌는데, 하나는 쿠르드 난민 캠프에 지원금을 보내는 것이었고, 이 일은 “느헤미야 기금”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종교적 박해로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거기서 구출해오는 방식의 지원이었는데, 그 창구역할로 작년 1월부터 기능하기 시작한 것이 “Generace21 기금”입니다.

이후 Generace21은 체코 정부, 의회, 교회의 주요 인사들과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펼친 결과, 체코 총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내무부와의 협의 속에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라크 현지로 가서 믿을 만한 단체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인터뷰를 거쳐, 체코로 오길 희망하는 사람들 중에서 ‘박해의 상황 속에 있는 세례교인’임이 입증되는 이라크 크리스천 난민들의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153명이 추려지고, 이에 대한 검토 후 체코 정부는 작년 12월 14일, IS의 박해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이라크와 레바논의 크리스천 난민 153명을 받아들여 체코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렇게 올해 1월부터 몇 차례에 걸쳐 난민들이 체코로 들어오기 시작하여, 30명은 이흘라바에서, 24명은 브르노에서, 14명은 스밀로비체에서, 그리고 3월 20일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21명은 프라하 브라닉에 머물며 초기정착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이렇게 체코로 들어온 난민들은 초기 1년간 세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첫 두 달은 공용주택에 머물면서 망명 절차를 밟고, 의료검사를 받고, 체코의 문화와 관습과 언어를 배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다음 넉 달은 각 가정이 독립된 집에 살면서 체코어를 배우고 체코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섯 달 동안은 여러 사람이나 기관의 도움을 받아 일자리와 새 거주지를 찾고 체코에서의 독립된 생활을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체코에 들어온 89명의 난민 가운데 25명은 다시 독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8명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다시 이라크로 돌아갔습니다. 또 다른 16명은 독일로 가기를 희망하였지만 체코 경찰에서 허락하지 않자 이라크로 돌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당초 153명까지 난민을 받겠다 했었지만, 지난 4월 7일 더 이상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라크와 레바논으로부터 들어와 체코에 남아있는 크리스천 난민들의 숫자는 총 40명입니다.

현재 프라하에 머물고 있는 난민 21명(6가정)은 구세군의 돌봄을 받으며 두 번째 단계의 정착 과정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에 공문에서 요청한 것처럼, 앞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 도움을 줄 교회와 기관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시간에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궁금하실 줄 압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고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저도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에서 우리와 같은 나그네 이웃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일단은 관심을 갖고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하였습니다. 그 모든 일을 다 알 수는 없어도, 적어도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일에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 정도입니다.

그저 이 마음, 이 상황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만약 이에 대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고 또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기대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성경에 기록된 이 짧은 한 구절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로 번역된 히브리어 ‘게르’는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자기 혈족을 떠나 히브리인들 가운데 섞여 살았던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들은 이주민으로서, 자기 몫의 땅도, 법적 권리도 없던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나그네 이주민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구약의 본문은 이에 대해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역시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있는 동안 나그네로서 사회적인 천대와 괄시를 받았으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멍에를 꺾어주시며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과 함께 거하는 나그네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베풀 차례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로서 그와 같이 나그네 된 다른 사람들을 선대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주어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들에게 그처럼 떡과 옷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그들을 사랑하라 명령하실 이유가 무엇인가?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사회적 약자 나그네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에 연결된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처지의 나그네들에게 사랑을 베풀고자 할 때,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옆에서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나그네들은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돌보심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들의 필요에 반응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믿는 하나님에 대해 말입니다.

이 사실은 이 체코 땅에서 외국인이자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곳에서 이주민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입으며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곳으로 이주해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다른 나그네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당면한 필요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동안 우리에게 공급해주셨던 은혜를 다시금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나도 이 곳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다른 이주민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리라!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신실한 종이 되리라!

나그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먼저 온 나그네로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 옆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여시어 우리가 해야 하고 또한 할 수 있는 일을 분명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그네를 사랑하고 선대하라는 명령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명령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신약의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그네 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그네 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를 의미하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의미한다고 좁게 해석하기도 하고, 결핍을 안고 우리 곁에 존재하는 모든 약자들을 의미한다고 넓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신약의 서신서에는 “나그네 대접”과 관련하여 이 두 경우가 모두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믿음으로 순례자의 삶을 살던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교회가 영접하고 선대할 것을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요삼1:5,8)

또한 히브리서에서는 이와 같은 형제 사랑의 손님 대접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을 섬기는 복된 일이 될 수 있음을 일깨워주며 권면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13:1-3)

한편, 사도 바울은 그의 목회서신들에서 이 ‘나그네 대접’을 교회 중직자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로 언급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공통적으로 언급된 교회 감독의 자질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찾아가고, 또한 영접하도록 명령 받은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범위를 나와 같은 크리스천, 혹은 내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으로 제한하려는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5:46-47)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그가 큰 자이든 작은 자이든, 그가 내게 호의적인 사람이든 아니든, 무언가 결핍을 안고 내 옆에 존재하는 이웃을 편견 없이 섬기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설령 그것이 예수님처럼 거룩한 희생을 요하는 일이 될지라도 말입니다.

지난 16일 영국 노동당의 41세 젊은 여성의원 조 콕스 의원이 길거리에서 52세의 남성에 의해 피습 당해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조 콕스 의원은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에 관한 찬반을 묻는 Brexit 국민투표를 앞두고 EU 잔류 캠페인을 벌여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Britain First!” (영국이 우선이다!”)라고 현장에서 외치는 걸 들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 “Britain First!”라는 외침 속에 담긴 의미는 이런 것일 것입니다.

“영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주민들, 영국에 들어와 살려 하는 난민들, 당신네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겠다. 영국은 우선적으로 영국인들의 나라다. 미안하지만, 다른 인종들이 우리들 속에서 더불어 사는 것을 나는 환영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너와 나의 차이를 강조하고 구별 짓고 차별을 조장하는 대신,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숭고한 가치를 가장 앞세우며 통합과 연대를 좇았던 한 젊은 정치인은 바로 이런 논리에 의해 희생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이고,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가치가 ‘나 우선’ ‘나 먼저’ ‘나 중심’이 아님은 이처럼 분명합니다.

우리 자신이 사랑할 이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이웃이 되도록 우리를 부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또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보건대, 기독교인은 “내가 살기 위해 네가 죽어야겠다”는 태도로 사는 사람들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던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의 길을 좇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근거 없는 두려움과 편견을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테러의 위협이 전에 비해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차를 타고 여행하다 사고로 죽는 숫자가 그처럼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의해 상해를 입는 숫자보다 많다는 걸 아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테러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테러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이 우리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난민이나 이주민들은 후에 테러리스트가 되기 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요소들을 아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교육받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상황은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를 양산하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나그네들을 우리 안에 영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나그네들을 더 세심히 돌보아주어야 할 이유입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다른 이주민들 속에 섞여서 유럽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입증하는 드러난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 지금까지 유럽에서 테러를 일으켰던 이들의 대부분은 이미 유럽 시민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유럽 사회가 그 안에 살고 있던 이주민들이 테러리스트가 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됩니다.

오히려 유럽에서 일어났던 대부분의 끔찍한 테러는 극우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행해졌습니다. 차이와 관용과 나눔과 공존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두려움과 편견으로 바라보고 단정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내가 사랑할 만한 이웃인가 섣불리 판단하기 전에, 나와 내가 속한 사회가 내 옆에 있는 나그네들에게 지금 어떤 이웃의 모습으로 있는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만나서 직접 얼굴을 대하고 대화하는 일, 서로를 좀 더 알고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일, 그리고 서로간에 차이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앞세우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우리 교회에 전달된 Generace21의 공문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에 관해 약간의 얘기만 덧붙이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Generace21의 제안에 대해 지난 당회에서 충분한 논의는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당회원들이 이 사안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요하는 일인지를 잘 알기에 그만큼 더 책임 있게 접근하려는 뜻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체코의 다른 곳에 비해 물가가 비싼 프라하에 정착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황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가?”라는 질문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우리 교회 체코 교우들이 이 공동체 내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그 동안 어떻게 책임 있게 섬겨왔는지를 새삼 놀라움 가운데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체코공동체는 Petra Fišerova 교우에 대한 신앙적, 정신적 보살핌만이 아니라, 그분이 경제적 권리를 포함하여 많은 부분에서 독립적인 법적 권리나 판단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인이 받는 정부지원을 포함한 개인 재정관리에서부터 그와 관련된 행정절차, 생활과 밀접한 각종 유틸리티 관련 계약 등에 관한 까다롭고 귀찮은 일들을 대신 감당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분이 이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집을 물색하고, 계약조건을 협의하여 계약하고, 이삿짐을 손수 옮기고, 기존 거주 공간을 청소하고, 새 집에 필요한 가구를 보충하고, 시설을 보수하는 등 일체의 일을 몇몇 교우들이 시간을 내어 힘을 모아 감당하였습니다.

그 동안 이러한 섬김을 실천해온 체코 교우들에게 “현재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가?” 라는 질문은 단순한 책임회피의 말이 아니라, 그 일의 가치와 무게를 아는 분들의 진솔한 고백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이 꼬빌리시의 체코 교우들은 아시아에서 온 이주민 크리스천들을 자기들 안에 받아들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일의 의미와 가치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이 나그네들을 위한 섬김의 일에 한 마음으로 동참할 교우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어떤 한 두 사람만이 그 짐을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더욱 많아질 것이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또 다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초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내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우리 옆에 들어와 있는 나그네 이웃들, 그리고 이 세상 어딘가에서 집과 조국을 잃고 떠돌고 있는 난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는 보호해줄 국가가 없는 자들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형제자매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된다면, 나그네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로서 우리 옆에 있는 다른 나그네들을 잘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올해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 속에서,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씀, 지극히 작은 나그네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은 곧 주님을 영접한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의 행할 바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꼬빌리시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정든 집을 떠나 타지에서 헤매거나 정착을 노력하는 모든 이주민과 난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